

단국대, 국내 첫 'AI 캠퍼스'... "학생 스스로 미래 설계 가능"



■장면, 가상현실 프로그램 전문가가 꿈인 2019학번 단국대 신입생 서예나 씨는 첫 수강신청을 앞두고 고민하다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자 AI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말을 건다. 서 씨는 "가상현실 프로그램 전문가가 되기 위해 4년간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잠시 뒤, 음성을 인식한 AI가 서 씨에게 최적화된 4년간 수강과목 리스트와 담당교수를 화면으로 주르륵 보여준다. 또 관련 동아리, 교내 관련 인턴십이나 행사,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고서적, 이미 비슷한 분야에 진출한 동문 선배들의 정보까지 안내해 준다.

단국대가 국내 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이 같은 AI 시스템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한국IBM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IBM은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Watson)에 단국대의 모든 학생정보, 학과와 강의정보, 학생 생활정보를 학습시켜 왓슨이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미래 대학'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광경을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 단국대는 이번 달부터 한국IBM과 컨설팅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단국대 죽전캠퍼스에서 박범조 교무처장(경제학과), 유정석 교무부처장(도시계획부동산학과), 유승준 교수(교육대학원 교육학과)를 만나 AI가 바꿀 미래의 대학에 대해 들어봤다.

● '미래의 대학' 고민, AI에서 답 찾아

—한국 최초로 대학에 AI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계기는...
▽박 교무처장=2014년부터 미래의 대학상에 대한 고민이 학교 내에 많았다. 사회는 융합 인재, 창의인재, 자기주도 인재를 원하는데 대학의 학과나 학부, 교육과정 체계는 1980년대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나만 해도 경제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단국대 죽전캠퍼스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센터에서 만난 유승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와 박범조 경제학과 교수, 유정석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왼쪽부터)는 "각종 첨단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대학도 활용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 도입은 재학생들의 대학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경대 기자 sanne@donga.com

한국IBM과 AI 시스템 도입 MOU 입학부터 취업까지 모든 정보 제공

학을 전공했지만 경제학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했고 공부했고 학교가 정해 놓은 과목을 들었다. 대학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방안을 고민하던 중 2015년 호주 멜버른의 다진다가 IBM의 인공지능을 대학에 적용한 사례를 알게 됐고 학생 만족도나 취업률,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둔 것도 확인해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유 교무부처장=맞벌이형 학생들의 질문이

개개인에 맞는 커리큘럼 짤 수 있어 학생-수요자 중심 대학으로 바뀔 것

나 호기심이 시간이 갈수록 변화하고 최신의 것을 원하는데, 교수는 이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4년간의 대학생활 설계는 물론이고 취업이나 창업 관련 정보, 해외의 연구 동향, 실제 기업에서의 근무 환경 등에 대해 교수는 극히 제한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 미 의로, 법률, 금융 분야는 AI를 도입해 고객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컨설팅을 해준다. 왜 이런 시스템이 대학에서는 불가능한

지 의문이 들었고, 그걸 해보려고 했다.
▽유 교수=AI 도입 추진의 가장 큰 의도는 학생 개개인에게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힘과 능력을 주자는 것이다. 신입생은 대학생들이나 강의, 취업, 진로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다. 지금은 선배나 조교를 통해 알아알음으로 불완전한 정보를 얻을 뿐이다. 이런 방식 말고, 대학이 가진 모든 방대한 정보를 AI에 학습시키고 가장 최적화, 합리화된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한다면 학생이 자신 있게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단국대가 텍스트(할자) 형태로 보유한 학사자료만 300쪽 책으로 6만 권 분량이다. 이 모든 정보가 AI에 들어갈 예정이다.

클라우드 영어로는 'cloud'로 '구름'을 뜻한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접속해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학생 스스로 대학생활·취업·창업 설계

—AI 시스템이 완벽해질 때까지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은데...
▽박=일단 8월까지 IBM과 컨설팅을 마치고 강의록, 강의정보, 학사행정정보 등을 AI에 학습시키기 시작할 계획이다. IBM은 한국어 음성 인식 서비스가 올해 말이면 거의 완벽하게 구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2017년에는 헬스케어나 연구개발 쪽으로 분야를 넓힐 예정이다. 처음 사업운영 과정에서는 버그나 오류도 있었지만, 꾸준히 정보가 축적될수록 점점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우리는 AI를 통해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창의성과 개성을 고려한 커리큘럼과 학업 계획을 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졸업학점 중 반드시 들어야 하는 전공과목 비중도 줄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한 과목도 개설할 생각이다. 물론 이에 대한 일부 교수의 우려도 있지만 AI가 자질구래한 학사사무를 대체하면 교수는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될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본다.
▽유=현재의 대학이 정해 놓고 만들어 놓은 틀과 교육과정을 학생에게 강제하는 식이라면, 미래 AI가 바꿀 대학은 철저하게 학생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학과나 학부 틀, 학년 간의 경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무너지지는 우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대학이 이런 변화와 트렌드를 피할 수 없고, 우리는 가장 최전선에서 먼저 대응을 시작했다.

용인=이은택 기자 nab@donga.com

강의실의 변신... 벽 허물어 소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

최첨단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센터

최근 경기 용인시의 단국대 죽전캠퍼스 사관 1층에는 최첨단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센터가 들어섰다. 지난달 30일 찾은 센터는 마치 구글 등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의 자유로운 사무실 같은 구조였다. 칸막이나 벽이 없었고, 책상은 퍼즐처럼 여러 개를 맞출 수도, 분리할 수도 있었으며 곳곳에는 대형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있었다.

회의를 할 때 필요하면 접혀 있던 유리벽을 쭉 펼쳐 칠판처럼 메모를 하거나 기록을 하는

태 될 수도 있었다. 강의실과 사무실이 미래형 첨단 건물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곳에서 만난 김태형 교수(대학원 테이터사이언스학과)는 "원래는 강의실과 사무실 여러 개로 나누어 있던 곳"이라며 "학생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센터 안쪽에는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시제품을 만들고 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스마트폰 60여 대를 비치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

도록 할 계획이다.

단국대는 지난해 11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용인시, SKT, SAP, IBM 등과 함께 이 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미래부가 지난해 9월 센터 구축사업 공고를 냈고 여기에 선정된 것.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찾는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를 IT와 소프트웨어에 접목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김 교수는 "디자인 사고란 외형적인 인테리어나 미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국대는 학생들의 토론과 상상력 발휘, 창업 지원을 위해 기존 사무실과 강의실(왼쪽 사진)의 벽을 없애고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센터를 만들었다. 용인=박경대 기자 sanne@donga.com

현재는 리모텔링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태다. 김 교수는 "센터가 정식으로 개원하면 대학원생들의 수업 공간, 토론 공간, 창업 공간

으로 쓰일 것"이라며 "우리 학교에서 특강이나 연수를 받는 공무원들도 이곳에서 수업을 듣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몰라주는 나만의 괴로움

이명[耳鳴]

의료기기 정보기술 지원센터
인증 의료기기 모델명: SR-3100

에코나

검색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에코나 1주일 무료체험

1. 택배비 5,000원을 입금하시면 일주일 무료체험이 가능합니다.
2. 제품 수령과 동시에 담당자가 전화하며 증상에 맞는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3. 02)785-2075로 전화 상담하거나 에코나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4.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SR-3100은 의료기기 정보기술 지원센터 인증 의료기기

1. 다양성	2. 편의성	3. 효율성
잠들기 전 바로 착용하고 다양한 9개 음원을 구비하여 사용자에게 맞는 음원 선택	낮에는 이어폰을 사용하고 취침 중에는 스피커 제게를 사용하여 편리함	휴대기 간편한 이명치료용 착용발달기이며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

*귀 전문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병/의원/진료센터/개인사업자)

[자격요건]

1. 전국 종합병원 및 지역 권역별 병원 (청각 검사실 미보유 병원도 가능)
2. 전국 난청센터 (청각사, 청음사 및 청력 검사실 보유 센터)
3. 전국 지사 및 개인사업자 모집

여의도 본사로 직접 방문 환영
(9:00 ~ 18:00, 3월 ~ 5월)
*반드시 사전예약 바랍니다.
전화상담
할금 (오전 8:00 ~ 오후 6: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4-6 영창빌딩 501-에이호 / www.econa.co.kr
[상담 및 구입 문의] 02)785-2075 이명철오